

6월 Market Index

코스피

2544.28

(-31.22)

코스닥

706.59

(-18.69)

금리 (한국은행)

2.881

(-0.024)

환율 (원·달러)

1339.90

(+4.00)

‘학연 인사’ 시끄럽더니… 18개월 간 322억 금융사고

흔들리는 100년 은행

❶ 과거 구태 반복 임종룡號

조직문화 개선·혁신 약속했지만 첫인사부터 연대 출신으로 채워 직원들에 불공정 인사 인식 확산

취임 후 사기·횡령 사고만 10건 당국, 우리금융지주에 개선 압박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로 온 지 1년이 넘었지만 우리금융·우리은행 내부 조직문화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취임 이후 특정인맥이 주류로 부상하고, 100억원이 넘는 사기·횡령사고와 대규모 부당대출이 발생하는 등 감춰져 있던 조직문화의 구태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서다. 직원의 신뢰를 넘어 고객의 신뢰까지 떨어뜨릴 우려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개선할 의지가 없다며 이사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학연·지연으로 이뤄진 인사…직원 신뢰 저하

지난해 3월 임 회장은 취임하며 “우리 임직원들이 속한 조직에 대한 신뢰도가 다른 금융사에 비해 크게 낮다는 것에 가슴이 아팠다”며 “인사·평가, 내부통제, 등 조직에 부족한 점이 있거나 잘못된 관행이 있는 분야는 과감히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시 우리금융은 라임·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 등 위험성이 큰 금융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시기였다. 실적위주의 평가가 지속되며 불안전 판매가 이뤄졌던 만큼 객관적으로 공정한 인사·평가 제도를 통해 조직문

화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이 약속은 첫 인사부터 흔들렸다.

임 회장은 취임하자마자 라임·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전 회장을 우리은행 고문으로 앉혔다. 통상 주요 금융그룹은 전임 CEO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1~2년 그룹 고문역을 맡긴다. 다만, 손 전 회장은 라임·DLF사태로 은행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잘못된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연봉 4억원을 2년간 받을 수 있도록 고문자리를 내줬다는 설명이다.

임 회장은 또 주요 9개 지주 부문장 중 4명을 연세대 출신으로 채웠다. 연세대는 임 회장의 모교다. 임 회장을 포함하면 금융그룹 내 주요 직 중 절반이 특정 학교 출신으로 채워진 셈이다.

이성욱 재무부문장 부사장은 연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지주에서 재무관리부 본부장, 재무기획단 상무, 재무부문 전무를 거쳐 2022년부터 재무부문장을 맡았다. 이 부사장은 임회장 취임 후 단행한 조직개편에서 유일하게 유임됐다.

장광익 브랜드부문장 부사장은 연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임 회장의 직속 후배다. 장 부사장은 전 MBN의 보도국장·기획실장으로 외부영입을 통해 부사장에 선임됐다.

이해광 경영지원부문장도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 본부장은 우리은행 부산서부영업본부 영업본부장을 거친 뒤 임 회장이 내정자였던 당시 비서실장을 맡았다.

미래사업추진부문장였던 김건호 그룹장은 연세대 경영학과 출신이다. 김 부분장은임 회장이 단행한 조직개편 당시 미래사업추진부문장으로 발탁됐다가 우리은행 자금시장그룹으로 이동



추석 앞두고 북적이는 전통시장

추석 연휴를 1주일 가량 앞둔 8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이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 회장에 대한 인사가 연세대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비판이 돌아마자 주영공사로 지냈던 당시 알게 된 인맥을 중심으로 인사가 바뀌고 있다”며 “특정 학연, 인맥을 중심으로 인사가 나면서 인사평가가 공정하지 않다는 직원들의 인식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1년6개월간 사기·횡령만 10건…계좌 이관 요구 ↑

문제는 이 같은 인사가 지속되면서, 직원들의 사기·횡령 금융사고도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내부의 신뢰 하락이 국민의 신뢰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임 회장이 취임한 2023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 1년 6개월간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10건으로 총 4개 계열사에서 발생했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은 6건(311억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리카드가 2건(9억5800만원), 우리금융캐피탈 1건(1억 1600만원), 우리금융저축은행 1건(1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임 회장이 취임한 이후 1년 6개월까지 322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는 같은 시기 취임한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2023.3.23) 기간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36억 3730만 원)과,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2022.3.25)이 1년 3개월 기간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65억 8560만 원)보다도 훨씬 많은 수준이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30년 김포공항 UAM시대 연다 3조 투입… 첨단산업 도시 본격화

김포공항 혁신지구 지정 고시
UAM 이착륙장·복합환승시설 조성
경제 효과 4조, 3만개 일자리 창출

오는 2030년 서울 김포공항 일대에 도심항공교통(UAM)이착륙장과 복합환승시설이 준공돼 본격적인 ‘UAM 시대’가 열린다. 여객·물류 이동 기능이 강화되고, 미래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돼 공항 중심의 신(新) 산업·경제 거점이 탄생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9일 강서구 공항동 김포공항 일대(35만4000㎡)가 ‘김포공항 혁신지구’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미래 교통 허브 및 모빌리티 첨단산업 중심의 경제 활력 도시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사업비 투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사업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혁신지구 개발이 마무리되는 2033년 이후 김포공항은 UAM 이착륙장·간선급행버스(S-BRT) 등 신규 복합환승시설과 기존 도심공항 인프라가 연계된 혁신 신산업 허브로 변모한다. 시는 3만여개의 일자리와 약 4조원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포공항 혁신지구에는 ▲국·시비

100억원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 490억원 ▲민간 2조9050억원을 포함 총 2조9640억원이 투입된다.

김포공항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지하 4층~지상 8층 규모의 복합시설로 건립된다. 전체 면적 35만㎡에 3개 블록이 조성된다. 1블록에는 UAM 등 이착륙장과 복합환승시설이 들어선다. 2블록에는 항공업무시설이, 3블록에 첨단산업시설이 만들어진다.

시 관계자는 “공항과 연계된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발생한 개발 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그동안 항공소음 피해와 건축 규제 등으로 소외됐던 지역과의 상생을 이끌어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포공항 혁신지구 1블록은 2030년, 2·3블록은 2033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도 혁신지구 기본계획 수립(사업시행자)에 이어 2026년 건축 설계, 2027년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마친 뒤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김포공항 일대가 미래교통 허브이자 첨단산업 중심의 경제 활력 도시로 재탄생하도록 사업을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임종룡 회장 우리금융지주 첫 인사〉

성명	직위	학력·이력
이성욱	우리금융 재무부문장 부사장	연세대 경영학과
장광익	우리금융 브랜드부문장 부사장	연세대 경제학과, 언론인(MBN)출신
이해광	우리금융 경영지원부문장	연세대 경제학과, 회장 내정자 비서실장
김건호	우리금융 미래사업추진부문장	연세대 경영학과
김경우	우리 PE대표(유임)	연세대 경영학과
황우곤	우리그러로벌자산운용대표(유임)	연세대 경영학과

〈우리금융 계열사 금융사고 현황〉

우리금융계열사	금융사고 건수	금융사고 금액
우리은행	6건	311억400만원
우리카드	2건	9억5800만원
우리금융캐피탈	1건	1억1600만원
우리금융저축은행	1건	100만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민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별세 애도… “친일 굴종 외교 심판할 것”
▲ 안철수 “내년도 의대 증원 유예해야… ‘2026년 논의’ 대안 안 돼” /사진 뉴스1

▲ ‘전국민 25만원’에 ‘국가 책무’까지… 지역상품권, 골머리 앓는 정부
▲ 여 “이재명, 국내 주식시장 간과… ‘금투세 폐지’ 결심할 때”



▲ 조국, 영광·곡성서 월세살이… 호남 재보선 총력전 /사진 뉴스1
▲ 여, 야 한준호 의원·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 등 불법시위로 고발